

\* 오 레 지 나

목차	Abstrac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구성
	IV. 적용사례 및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6.01.30.

논문심사일 : 2016.02.17.

게재확정일 : 2016.03.01.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cological art education program

174

Oh, Regina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society is very important as the society is the field where the effect of education is proved and the paradigm of it is shifted.

The ecological crisis, which is the result of consumerism, commercialism, and mechanical world view based on the culture human greed dominates, can be overcome by the efforts to change the old paradigm to the ecological one. The Integrated Ecological Art Education is the artistic method as well as educational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s of humans in changing society.

Each individual forms culture mak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 community. Therefore, the Integrated Ecological Art Education should pursue both focusing on the students and various ways of communicating with the others in the community. For this purpose, a program of the Integrated Ecological Art Education has been invented and applied to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san City,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Integrated Ecological Art Education program, Dancing Time with Hayang and Wachon, consisted of sixteen-hour-class divided into "Eco-experiencing" and "Eco-sharing."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internalize the ecological values and attitudes such as Life, History, Nature, Body, and Movement in the students and proved its viability of application to students and parents.

〈key words〉 eco, arts integration, arts education, arts integrated education, eco education, education of eco arts,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주요어) 생태, 예술통합, 예술교육, 예술통합교육, 생태교육, 생태예술교육,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월 18일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등 문화융성을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6/plan2016\\_gov.jsp](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6/plan2016_gov.jsp)). 이처럼 문화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강국 도약으로 ‘20-50’ 클럽에 가입하고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위상은 높아졌으나 OECD국가 36개국 중 행복지수는 24위에 해당하는 등 양극화의 심화로 삶의 질은 저하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으며 사회 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핵심으로 ‘문화’가 떠오르고 그동안 우리의 삶과 생존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문화의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http://www.pcce.go.kr>).

문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관습,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총체를 의미하며, 그 중심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2004년과 2005년 정책형성과 체계화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인력과 기관 및 단체들의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교육은 격자화(格子化)된 학문적 지식들을 가로지르는 교과간의 통합 시도와 함께 지극히 세분화되어 학습되는 지식들의 창의적 조합(김화숙 외 5인, 2015:129)을 위한 사고와 태도의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또한, 양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물신주의에서 사람중심, 생명중심으로의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현실에서 생태(Eco)는 자연 생태계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을 총체적으로 포괄한 실재로 인정되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과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igogine이 이야기 하는 생물계의 자발적 질서 구축원리로서의 ‘자기조직화’를 창발, 관계구현(오레지나, 2015:7-9)

등의 예술교육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는 삶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과 공간의 중첩된 질서 속에서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생명과 삶의 터전인 시간, 공간에 대한 발견과 의미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생태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김현정(2008)의 연구를 비롯하여 생태무용교육(오레지나, 2011; 임희선, 2012; 도수영, 2013), 생태미술교육(장연자, 2006; 김지현, 2009; 광명지, 2009; 차현주, 2012; 최유정, 2013; 김나연, 2014; 김주미, 2014), 생태시각문화교육(김민정, 2010), 음악극 중심의 환경교육(이현민, 2010)등 세부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활기를 띄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예술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는 임미진(2007)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생태미술교육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생태예술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천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천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근거지인 지역 속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기초로 연구진 회의를 통해 경산지역 특성에 맞춘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개방형 설문지와 수업을 관찰한 일지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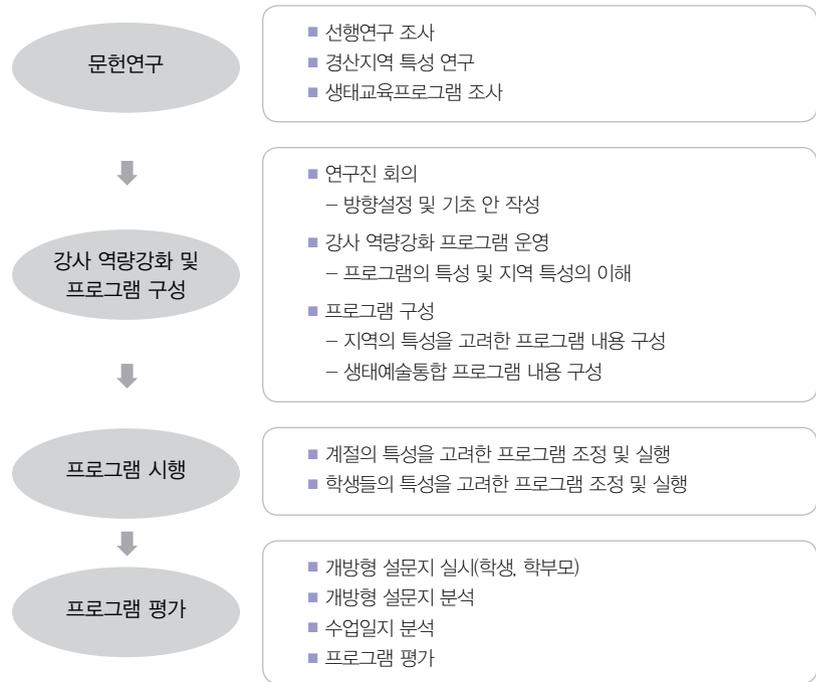


그림 1.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내용

### Ⅲ.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구성

#### 1. 프로그램 개발 방향

##### 1) 생태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생태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 즉 원형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임일진, 2015:123). 생태는 자연지향적, 자연중심적, 생명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순환하는 ‘생명성’, 각 개체의 독특함이 모두 인정되고 허용되고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 그리고 각 개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갈등하며 조절하고 협력하는 ‘관계성’ 등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오레지나, 2011:27).

생태교육프로그램은 생태체험과 생태적인 움직임을 통해 생태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적 사고는 과정의 사고이며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자기를 조직하고 조절하며 역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를 통합의 견지에서 보는 시스템적 견해(systems view)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 역사, 자연, 몸, 움직임 등에 대한 생태적인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견학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공동체 놀이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분리수거, 개인 컵 사용 등 생활 속의 실천을 수업 안에 구조화 하여 생태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산의 지역을 기반으로 생명, 역사,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곳(스트로마톨라이트, 환성사, 금호강)을 생태지킴이로 설정하고 이를 여행의 형식으로 탐색하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양이와 와촌이의 춤추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명을 정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연기념물 5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이한 형태의 생물 퇴적 화석으로 초기 지구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초기 지구의 형성과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박테리아 및 미세조류의 진화과정을 밝히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환성사는 835년(흥덕왕 10)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창건하였고, 고려 말에 불타버린 것을 그 뒤 다시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심검당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4호, 대웅전은 보물 제562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경산시 일대를 지나 서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지류支流인 금호강은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의미화, 내면화 할 수 있는 생태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2)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21세기에 들어서며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통합(integration)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통합은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 이고,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일’ 이다(오세훈, 2009:133).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통섭(consilience) 즉, 더불어 넘나듦(jumping togethe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통섭은 ‘큰 즐거움을 잡다.’, ‘총괄하여 관찰하다.’라는 뜻(Wilson, E. O., 1998, 최재

천 역, 2005:10-13)으로 이해된다.

예술은 감각, 상징, 소통의 예술이 갖는 세 가지 공통요소를 근거로 통합될 수 있다(김화숙외 3인, 2012:107). 이러한 예술통합은 예술가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를 서로 다른 자기, 타인, 공동체로 인식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향(김화숙외 3인, 2012:111)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를 관찰하고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 체험을 내면화 하고 가치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2. 프로그램의 구성

본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하양이와 와촌이의 춤추는 여행’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태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명과 역사,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에코댄스의 핵심원리인 살림, 다음, 어울림(오레지나, 2010:56)에 기초하여 관찰하고 탐색하고 경험하며 체험한 것을 의미화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생태체험은 스트로마톨라이트, 환성사, 금호강을 관찰, 탐색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기원과 가치, 역사와 문화유산의 소중함, 자연 생태계의 생명성 등을 이해하고 생태적인 시각을 형성시키는 단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생명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생태지킴이를 여행을 통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생태나눔은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 생태지킴이에 대한 상징화, 춤과 만다라를 통한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공간, 소리, 움직임 등을 디자인하고 실천전략을 상징화하고 체험한 내용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단계 및 활동내용은 <표1>, <표2>와 같다.

표 1. 교육프로그램 구성 단계 및 핵심개념

구성	단계	에코댄스 핵심개념	구성	구성
생태체험	관찰, 탐색, 경험	살림	생명	스트로마톨라이트
			역사	환성사
			자연	금호강
생태나눔	의미화, 내면화	다음 어울림	여행	춤추는 여행
			관계	관계 디자인
			나눔	발표, 감상

표 2. 교육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총 16회차)

회차	교육주제	활동내용
1	방기방개!	이름표 만들고 나를 표현하기
2	생태지킴이를 찾아 떠나는 여행 1	스트로마틀라이트
3		스트로마틀라이트 상상 벽화
4	생태지킴이를 찾아 떠나는 여행 2	역사의 공간을 찾아서~(환성사)
5		하늘 높이 소원을 빌어요!
6	생태지킴이를 찾아 떠나는 여행 3	봄을 준비하는 생명들(금호강)
7		봄이 되면 나는!
8	겨울을 선물하자	एको트리로 겨울 나누기
9	음양과 오행	춤추는 오행주먹밥!
10	오행지도	오행놀이, 오행지도
11	춤추는 여행지도	춤추는 여행지도
12		생태 춤지도
13	생태관계 디자인	춤추는 만다라 I
14		춤추는 만다라 II
15	생태나눔	발표전시회 준비하기
16		전시 발표회

## IV. 적용사례 및 결과

### 1.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적용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하양이와 와촌이의 춤추는 여행’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초등학교 55명을 대상으로 3시간씩 16차시로 진행되었다. 2015년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매주 3시간씩 주1회(토요일), 2016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3시간씩 주2회(금요일, 토요일), 저학년 2개 반과 고학년 1개 반으로 나누어 <표 3>과 같이 초등학교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수업 관찰을 하였다. 자연스러운 수업을 관찰하기 위해

수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그 사건을 관찰·기록하는 방법인 비 참여 관찰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방형설문지는 사후에 연구대상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학생 37부, 학부모 31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적용대상

학교	H초등학교	Y초등학교	G초등학교	K초등학교	계
학년	1	10	1	1	11
	2	11		1	3
	3	7	1		2
	4	4		1	1
	5	3		2	2
	6	5			
성별	남	18		3	1
	여	22	2	2	7
					33

## 2. 결과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45.9%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너무 좋았다.’ 16.25%는 ‘신체활동이 좋았다.’ 13.51%는 ‘다른 초등학생들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으며, 현장학습을 다녀온 느낌에 대해서는 62.1%가 ‘신나고 재미있었다.’ 37.8%가 ‘많은 것,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현장학습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환성사 미션수행(37.8%), 스트로마톨라이트(29.7%), 금호강(27%)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좋았던 수업에 대해서는 48.6%가 ‘몸활동과 춤추기’, 24.3%가 현장학습, 13.5%가 만다라, 10.8%가 ‘그림 그리고 만들기’라고 답했다. 또한 몸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춤을 춘 것에 대해서는 59.4%가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웠다.’고 답했고 27%는 ‘느낀 점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타의견으로 ‘부끄러웠다’, ‘힘이 들었다’, ‘표현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의 좋은 점에 대해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48.3%), 신체활동(22.58%), 친구들과 협동하는 공동작업(16.1%)이라고 답했으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없음(54.8%), 단기간 프로그램(16.1%)이라고 응답했다.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7%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했다고 답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함’, ‘자발적인 참여’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다(19.3%),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19.3%),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현 시킬 수 있어 좋았다(19.3%),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다(12.9%)고 응답했다.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사한 개방형 설문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과 같다.

표 4. 학생대상 개방형 설문 내용

	개방형설문지 소감내용
현장학습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신기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설명도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 천국에 간 기분이다.
가장 좋았던 수업	숲속을 걸어요, 오행놀이, 오행주먹밥, 아리랑 절하기, 매직핸드, 도깨비 방망이, 연날리기, 고무줄놀이, 춤추는 것 현장학습(금호강, 스트로마틀라이트, 환성사) 무브인형 만들기, 에코트리, 그림그리기, 만다라 언제나 좋았다.
몸을 통한 표현	부끄러웠지만 재미있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신나고 좋았다. 즐거웠다. 나의 표현력을 키울 수 있었다. 다양한 동작들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니 신이 났다. 전에는 글이나 말로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번엔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서 좋았다. 또 춤추고 싶다.
참여 느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유익했다. 친구들과 더 친해졌다. 선생님도 좋았다. 몸으로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활동적인 게 많아서 좋았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표 5. 학부모대상 개방형 설문 내용

	개방형설문지 소감내용
가장 좋았던 점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배운 것이 좋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이 좋았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수업분위기가 좋았다.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경험의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가장 좋았던 점	많은 아이들과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여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아쉬웠던 점	한 반에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신 것도 좋았다.
	프로그램 기간이 짧은 것. 지속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다. 없다.
학생들 반응	활동한 내용을 집에 와서 이야기 하는 모습이 좋았다.
	아이가 밝아졌다.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너무 신나고 즐거워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번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아이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흥미를 갖고 재미 있어 했다. 아이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여 느낌	앉아서 하는 딱딱한 수업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져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학교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수업이라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감사하다. 친구들과 협동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참여하여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 참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울동하고 나눌 수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무용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자연에 관심을 더 갖고 알게 된 것 같다. 아이에게 몸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특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되어서 귀한 시간이 되었다.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 좋았다.
	밴드를 통해 활동한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참 고맙고 좋았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태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의 수업일지 중 일부를 정리한 내용은 <표6>과 같다.

표 6. 생태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 수업일지 사례

날짜	관찰내용
10월 31일	학생들이 자신을 나타 낼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 속에 이름을 써서 명찰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만든 명찰을 목에 걸고 “숲속을 걸어요.”에 맞춰 함께 움직이며 친구들의 이름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의 첫 시간으로 처음으로 서먹해진 친구들이 많았으나, 서로 손을 부딪치면서 눈을 마주 보고 움직임을 함께하니 수업이 끝날 때쯤엔 어색해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
11월 21일	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인 환성사를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주문, 용연, 수월관, 심검당, 대웅전, 마당 총 6곳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를 기반으로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션들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환성사 곳곳을 찾아다니며 조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미션을 수행하였다. 환성사의 지붕명칭이나 문양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그려보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험수업에 아이들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1월 28일	<p>지난시간 현장학습을 간 '환성시' 일주모과 대웅전에서 몸과 마음을 모아 합장해 본 기억을 떠올리며 아리랑 음악에 맞추어 전통절로 구성된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진지한 태도로 절을 하였으며 느린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p> <p>또한, 학생들은 환성시의 모습과 자신들의 소망을 적어 연을 만들고 운동장에 나가 연을 날렸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고 즐거워하였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은 아쉬워 한번만 더 띄우면 안 되냐고 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p>
12월 5일	<p>봄을 준비하는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학습을 금호강으로 나갔다. 학생들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도꼬마리나 썩, 냉이, 도깨비바늘 등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쳐갈만한 식물에 대해 아주 흥미로워하였고 겨울에도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신기해하였다.</p> <p>추운 날씨였지만 자연과 하나되어 체험한 것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학생들은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도꼬마리를 머리나 옷에 붙이고 다니는 등 장난을 하기도 하였다.</p>
1월 9일	<p>지난 차시인 '춤추는 오행주먹밥'에서 오행에 대해 학습한 후라 학생들이 지난시간보다 더 자유롭게 오행의 기운을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p> <p>길쌈놀이를 통해 5개의 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재미와 함께 결국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조별로 다양한 오행놀이를 하면서 팀워크도 생겼으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였다.</p>
1월 23일	<p>체인댄스와 매직핸드를 통해 학생들 간의 협동심과 함께 결속력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고, 만다라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원을 이루는 모습이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시간이 되었다.</p> <p>자신이 그린 조각의 그림들을 따라하면서 너무 즐거운 모습을 보였고, 만다라 조각을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만다라 완성하기에서 아이들은 모든 조각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원형이 된 만다라를 보고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는 등 매우 감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p>
1월 30일	<p>전시 발표회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들을 정리해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부모님들께 소개하면서 학생들은 매우 뿌듯해 하였다. 부모님들과 함께 씨름댄스를 추며 모두가 신명으로 하나되는 체험을 하였으며,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즐거워하였다.</p> <p>학생들은 아리랑 음악에 맞추어 절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부모님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대견스러워하였다.</p>

개방형설문지와 수업 관찰일지 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생태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공동체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연과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나눔을 통하여 친구와 하나 되고 부모님들과도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생태적인 가치가 관계를 통해 의미화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이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는 교육의 효과 검증의 장인 동시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근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한해리, 2011:24).

생태는 생명과 순환, 지속성을 의미하며 이것에 입각한 생태적 시각은 세상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로 묶인 것,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의 욕망이 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주의, 상업주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하여 나타나게 된 것(박수현, 2015:63-64)으로 생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생태예술통합교육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교육적인 노력이며 예술적인 방법론이다.

각 개인은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를 구성해 간다. 그러므로 생태예술통합교육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 못지않게 지역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생들에게 적용하였다.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하양이와 와촌이의 춤추는 여행'은 생태체험과 생태나눔으로 나누어 16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생명, 역사, 자연, 몸, 움직임 등에 대한 생태적인 가치를 내면화 하고 생태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생태, 문화, 예술은 삶의 연장선 속에 있다. 그리고 삶은 관계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태예술통합교육은 삶의 문제를 예술의 상징을 통해 풀어가는 예술교육으로 지식보다는 사람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가치를 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예술통합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와 실천적 구조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에 본 연구가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곽명지(2009), "생태주의 접근에 의한 초등 미술 지도 방안 연구 : 습식 수채화 기법 활용 위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나연(2014),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미술교육 사례연구 : 도림천 생태미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2010), "생태주의에 기초한 중학교 1학년 시각문화교육 방안 : 공익광고 디자인 수업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미(2014), "창의성 발달을 향상시키는 숲 체험 활동과 생태미술 프로그램 연구 : 4, 5세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현(2009), "유아를 위한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3~7세 아동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정(2008),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김현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화숙,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2015), **무용교육론**, 한학문화.
- 김화숙, 전혜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Community Dance**, 한학문화.
- 도수영(2013), "생태무용 교수-학습과정 개발을 위한 생태예술교육 사례 및 학습방법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현(2015), "홀리스틱 영성교육과 무용교육의 관계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6집 제2호**, 51-67.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Ecodance)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3호**, 51-60.
- \_\_\_\_\_ (2011),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4호**, 25-33.
- \_\_\_\_\_ (2015), "생태무용교육에서 본 자기조직화 체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6집 제2호**, 5-17.
- 오세곤(2009), "통합예술 교과와 예술통합 교과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2호**, 133-138.
- 이현민(2010), "음악극 중심의 생태예술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미진(2007), "통합적 접근을 통한 생태미술교육 방안 연구 : 유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일진(2015), "생태적 공동체와 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6집 제2호**, 119-135.
- 임희선(2012), "생태 예술교육 사례연구 : 생태무용(Ecodance)의 교육적 기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연자(2006), "生態學的 美術教育課程의 理論的 探索",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弘益大學校 大學院.
- 차현주(2012), "초등 미술교육을 위한 생태 소재의 미술프로그램 개발 연구 : 1, 2학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유정(2013), "초등학교 미술수업 연계를 위한 유아 생태미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혜리(2011), "예술통합무용교육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2호**, 21-37.

Wilson, E. O.(1998), 최재천(역, 2008),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 북스

[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6/plan2016\\_gov.jsp](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6/plan2016_gov.jsp)

<http://www.pcce.go.kr>